

교육, 학생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라!



김 석
경향신문 스포츠부 부장

사람은 언제, 무엇 때문에 바뀔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일 것 같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스포츠부장이다. 몇 년 동안 올림픽, 월드컵 등등 스포츠 현장을 돌아다녔다. 김연아, 박지성, 홍명보, 차범근 등 스포츠스타들을 만나왔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지금은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후배들이 쓰는 기사를 손보고, 신문 지면을 짜는 일을 한다.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들 한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희로애락을 짧은 시간에 경험할 수 있어서다. 배움 역시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삶이 언제, 무엇을 계기로 바뀌었는지를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알아볼 수 있다.

얼마 전 스포츠지인 '스포츠동아'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올해 프로야구 감독으로 돌아와 연일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성근 한화 감독(73)과 한 선수의 얘기다.

김성근 감독이 SK 감독이던 2007년 얘기다. 김 감독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 식당에 온 투수 정우람(30·SK)에게 질문을 던졌다. “밥은 왜 먹냐?” 당시 정우람은 22살이었다. 처음엔 답을 못했다. 김 감독이 다시 물었다. “밥은 왜 먹냐고?” 정우람은 “살기 위해 먹는데요”라고 대답했다. 김 감독은 “그래, 살기 위해 밥을 먹는다. 그런데 살기 위해 야구도 하는 거야”라고 했다. 그리고 일장연설을 했다고 한다.

“짧고 굵게 사는 것도 있고, 가늘고 길게 사는 것도 있다. 그러나 ‘짧고 굵게 살겠다’고 독하게 마음 먹은 사람은 오래 살지만, ‘가늘고 길게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대부분 짧게 산다. 야구도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내일 바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 같은 좌완인데 김경태는 1군에 있고, 너는 2군에 있다. 구속은 너보다 떨어지지만 스트라이크를 던지니까 김경태는 1군에 있는 거야. 컨트롤이 안 되면 컨트롤을 잡기 위해, 변화구가 없으면 변화구를 연마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김 감독의 얘기는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한다.

정우람은 이후 ‘살기 위해’ 야구에 매달렸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체인지업도 그때부터 연마했다고 한다. 그 덕에 지금은 팀에서는 물론, 한국

프로야구 전체에서 인정받는 불펜 투수가 됐다.

스포츠에서는 감독들을 지도자라고 부른다. 대학으로 치면 교수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공부를 지도하듯, 감독들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도한다. 때로는 선수들의 삶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 초 한 명의 감독이 대한민국을 열광시켰다.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61)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 벨기에와 알제리에 밀려 16강에도 오르지 못했다. 특히 만만하게 생각했던 알제리에게 2-4로 대패한 것은 충격이었다. 축구팬들은 돌아오는 축구대표팀을 향해 공항에서 열을 던졌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했다. 개최국 호주에 저 아깝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선수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냈다. 공항에서는 옛 대신 팬들의 꽃다발이 축구대표팀을 맞았다.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 축구대표팀을 바꿔놨을까. 슈틸리케 감독의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호주와의 아시안컵 결승전 뒤 기자회견. 슈틸리케 감독은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냈다. 영어로 “가슴 속에서 깊이 우려난 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종이를 보며 한국어로 또박또박 읽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국어로 소감을 준비했다. 그가 얼마나 선수들을 사랑하

대학에 바란다

고 존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반 년 만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얼굴이 확 바뀐 것은 아니었다. 월드컵 때 댄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월드컵 때와는 움직임이 달라졌다. 슈틸리케 감독은 말했다. “호주에서 선수들을 지켜본 결과 규율과 의지 등 정신적인 부분이 긍정적이었다”고 했다. 감독이 자신들을 존중하는 것을 알아서 일까. 선수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이는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에 나타났다.

이런 슈틸리케 감독의 모습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을 떠올리게 한다. 숨어있던 선수들을 발굴해 내는 능력, 경기에서 보여주는 과감한 승부수들이 닮았다. 무조건 승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무작정 더 뛰라고 강요하는 대신, 선수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감독을 믿게 만들었다.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보여준 과감한 포지션의 변경은 단지 해당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신뢰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고, 감독을 믿어야만 가능하다. 김인식 전 프로야구 한화 감독은 “승리를 독려하고, 혼내고 꾸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최하수의 길”이라고 했다.

김성근 감독은 어떻게 정우람을 바꿀 방법을 알아냈을까. 아마 관심일 것이다. 평소 정우람을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다면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얘기할 거리가 없었을 것이다. 히딩크 감독과 슈틸리케 감독의 비결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경기장을 찾아다니면

서 선수들을 살피고, 오랜 시간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한 끝에 마음을 흔들 말과 맞춤형 전술을 내놓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대학에 바라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 딸을 꼼꼼이 챙겨보고 부모는 알아채지 못했던 가능성을 찾아달라고. 그리고 내 아들 딸이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길을 보여달라고.

요즘 대학생들은 너무 힘들다고 한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좁은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스펙’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다. 대학의 스펙 경쟁은 고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

치열한 경쟁은 낙오자를 낳는다. 그것도 일찍

우리 나라 학생들 가운데는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한 교육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큰 줄거리는 한국 학생들은 수학을 선진국들보다 빨리, 많이 배우지만 교수·학습 방법은 뒤처진다는 것이다. 미국·일본·싱가포르·영국·독일·핀란드 등 선진 6개국과 한국의 수학 교육 과정·교과서에서 지도항목과 주제, 배우는 시기·방법 등을 비교한 결과다.

분석은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진로나 대학 입시 방법에 차이가 너무 커서 초·중학교에 한정했다. 한국은 초등학교에서 6개국보다 평균 18.3개 항

목(26.9%)을, 중학교에서는 17.5개 항목(29.2%)을 빨리 배우거나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국의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등 논증기하 분야는 6개국에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아예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석한 고교과정에서도 문과에서 미적분을 필수로 배우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었다.

연구진은 한국은 양적으로는 많은 내용을 빠르게 가르치지만, 발견학습이나 협력학습, 토론·토의 등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나라는 여러 학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택하는 데 비해 한국은 한가지 학습 주제를 단번에 가르치고 끝내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한번 뒤떨어지면 따라가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수포자’가 양산되는 이유다.

다시 스포츠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탄 가와우치 유키라는 선수가 있다. 가와우치는 경기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사이타마현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라며 “마라톤에 전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왜 ‘공무원 마라토너’가 됐을까. 가와우치 역시 다른 전문 마라토너처럼 어린 시절부터 육상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육상 선수의 꿈을 키웠다. 재능은 부족했지만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고교시절 부상을 당한 데다 아버지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실

패했다. 코치는 “넌 마라톤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가와우치는 마라톤이 아닌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마라톤을 향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도 마라톤 훈련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 마침 고등학교 행정직원 자리가 났다. 야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낮 12시45분 부터 밤 9시15분까지 근무를 한다. 오전에 훈련을 할 시간이 있다.

물론, 전문 마라토너들에 비하면 훈련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선수들이 하루 3번씩 훈련하는 것과 달리 가와우치는 하루 한 번 정도 훈련한다. 한 달에 달리는 거리가 약 600km 정도로 전문 마라토너의 절반 수준이다. 1년에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훈련 및 대회참가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래도 가와우치는 달린다. 마라톤에 대한 사랑 하나로 그는 국가대표까지 됐다. 가와우치가 부족한 훈련 시간, 훈련 비용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은 한 가지. 가와우치는 “단지 훈련 시간을 채우기 위한,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하면 안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부상을 방지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되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 지금 훈련을 하는 것은, 달리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달리기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재능을 채우고도 남을 마라톤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훨씬 뛰어난 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대학에 바란다

대학이 김성근 감독, 슈틸리케, 히딩크 감독처럼 선수 하나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해줄 수 있다면, 부족한 재능을 뜨거운 열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잠

재력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훨씬 역동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필자소개

김 석 경향신문 스포츠부 부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12월 경향신문에 입사했다.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체육부, 국제부 등에서 일했다.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장, 비즈앤라이프팀장을 거쳐 현재 경향신문 스포츠부장 및 스포츠경향 스포츠부장을 맡고 있다. 스포츠 기자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 등을 현장에서 취재했다.